

## ▶ 아동

## 무기력하고 위축된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연구

이 춘 아 (호남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외래교수)

본 연구는 무기력하고 위축된 아동에게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내담자는 만 16세(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사업을 하는 부모님과 고등학생인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내담자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으며, 학교수업 시간에는 공상에 잠겨있고, 학교성적은 최하위권이며, 긴장하면 Tic현상이 나타난다.

내담자의 돌 무렵 어머니가 뇌수술을 해서 외할머니가 돌보았고, 내담자가 2세쯤에는 어머니가 취업을 해서 놀이방에 보냈다. 유아기에는 한번 떼를 쓰면 달랠 수가 없었고 편식이 심하고 잘 먹지 않았다. 가족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어머니에게 자주 화를 낸다.

내담자의 심리검사로 HTP, KFD, 문장완성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담자는 대단히 자아가 손상되어 있었고, 주위환경과 차단된 채로 혼자만의 세계에서 고립되어 있었으며 불안도가 높았고 악몽에 시달려왔다.

상담목표는 내담자의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자신감을 길러 학업에 관심을 갖게 하며, 불안과 긴장으로부터 이완시키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자 하였다.

모래놀이치료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매주 1시간씩 총 26회가 진행되었으며, 내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매주 1시간씩 4회의 부모교육이 실시되었고, 22회의 부모 상담을 실시하였다.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1회기부터 13회기까지는 투쟁의 단계로 주로 호랑이, 황소, 상어 같은 소품을 사용하거나, 무인도에서의 싸움 같은 주제를 표현하여 팽팽하게 공격하는 회기가 반복되었다. 14회기부터 23회기까지는 전환의 단계로 사막에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이나 해상레스토랑에 홍수가 몰아치는 상황을 모래상자에 표현하거나, 푸른 나무나 투우와 맞서서 싸우는 소품을 사용하여 자신의 힘이 길러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24회기부터 26회기까지는 적응의 단계로 농부가 모내기를 끝내고 잘 자라는지 살펴보는 작품, 소림사스님들이 학교에 다니려고 학교를 접수하는 모습을 모래상자에 표현하여 자신을 내적으로 통제하고 학교에 적응하는 내면을 표현했다.

모래놀이치료 결과 내담자는 불안과 긴장이 감소되어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가족과 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학업에 열중하여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냈다. 또한 내담자의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높았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고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본 사례를 통해 모래놀이치료는 자아가 손상되어 무기력하고 위축되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아동에게 효과적인 치료임이 밝혀졌다.